

KLSI

ISSUE PAPER

제 97 호
2018-12호
(2018.08.23.)

www.klsi.org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8년 3월 현재)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목차]

1. 전체
2. 성별
3. 규모
4. 산업
5. 시도(광역시자체)
6.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
7. 재벌기업
8. 1만 명 이상 거대기업
9. 합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

< 요약 >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7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45만 명(전체 노동자의 12.3%)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3.4%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인 이상 대기업 3,475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87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5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8%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3배 높다. 실제로 통계청 ‘임금근로자리 행정통계’에서 2015년 정부와 민간 대기업 노동자는 758만 명(전체 노동자의 39.6%)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은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이 올바른 노동정책을 선택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이 920개(26.7%)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695개(20.0%)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3만 명(31.4%)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70만 명(14.3%)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했음을 말해준다.

셋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4만 명(39.8%)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3만 명(21.1%),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1만 명(18.6%)이다.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70만 명을 정규직 32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4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3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25만 명(46.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7만 명(32.3%)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9만 명(14.1%)으로 줄어든다.

넷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2%고, 500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은 36.1%인데, 1천인 이상 기업은 40%가 넘는다. 즉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이 43.4%로 가장 높고, 1천인 이상 5천인 미만 기업과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1.9%이다. 대기업이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다섯째,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37.2%로, 간접고용 비정규직(29.3%)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9%)보다 4배 많다. 특히 GS(59.9%), 롯데(57.2%), 포스코(56.0%)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LG는 비정규직 비율 13.9%로 10대 재벌 중 가장 낮다.

여섯째, 지난 1년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늘린 재벌은 SK, LG, 포스코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줄인 재벌은 GS와 현대중공업이다. 롯데는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렸고, 삼성은 정규직은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였다. 롯데는 전체 고용규모가 6천 명 감소한데 비해, 삼성은 전체 고용 규모가 1만 4천 명 감소했다.

일곱째, 지난 1년 사이 다른 시도는 노동자수가 증가했는데, 경남과 울산은 노동자수가 감소했다. 경남은 19만 7천 명에서 15만 2천 명으로 노동자수가 4만 5천 명(정규직 1만 1천 명, 비정규직 3만 4천 명) 감소했고, 울산은 9만 7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노동자수가 1만 8천 명(정규직 7천 명, 비정규직 1만 1천 명) 감소했다. 이것은 조선산업 장기침체와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2014년에는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 명(39.5%), 2016년에는 190만 명(40.1%), 2017년에는 192만 명(40.3%), 2018년에는 194만 명(39.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8년 3월 현재)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1. 전체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18년 3월 3,475개소로 533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 명에서 487만 명으로 51만 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274만 명에서 293만 명으로 20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62만 명에서 194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했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5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28만 명 증가했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만 명에서 91만 명으로 3만 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39.8%로 0.5%p 감소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년 17.2%에서 2017년 21.3%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21.1%로 0.2%p 감소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년 20.0%에서 2018년 18.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연도	기업수 (개)	노동자 (천명)	정규직 (천명)	비정규직 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규모	2014년 3월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2015년 3월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2016년 3월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2017년 3월	3,418	4,755	2,838	1,917	1,015	928	902	40.3	21.3	19.5	19.0
	2018년 3월	3,475	4,865	2,930	1,935	1,029	931	906	39.8	21.1	19.1	18.6
증감	2014-15년	291	235	43	192	148	170	45	2.2	2.3	2.9	0.0
	2015-16년	231	144	58	85	71	58	13	0.6	1.0	0.7	-0.3
	2016-17년	-46	18	2	17	46	28	-29	0.2	0.8	0.5	-0.7
	2017-18년	60	110	92	18	14	3	4	-0.5	-0.2	-0.4	-0.4
	2014-18년	533	507	195	312	279	259	33	2.5	3.9	3.7	-1.4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각 연도

2. 성별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315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195만 명(61.9%)이고 비정규직은 120만 명(38.1%)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5만 명(20.7%)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55만 명(17.4%)보다 많다.

여성 노동자 172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98만 명(57.2%)이고 비정규직은 74만 명(42.8%)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8만 명(27.0%)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26만 명(15.8%)보다 많다.

[표 2] 성별 비정규직 규모(2018년 3월 현재)

성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남성	3,147	1,947	1,200	549	529	651	38.1	17.4	16.8	20.7
여성	1,718	983	735	480	403	255	42.8	27.0	23.8	15.8
전체	4,865	2,930	1,935	1,029	931	906	39.8	21.1	19.1	18.6

3. 규모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는 300인 미만 기업(166개소 4만 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300인 이상 1만인 미만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즉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28.2%인데,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에서는 43.4%이다. 1만인 이상 거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41.9%로 조금 떨어진다. 300인 이상 5천인 미만 기업에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지만, 5천인 이상 기업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다.

[표 3]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8년 3월 현재)

기업 규모 (전체 노동자 기준)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300인 미만	166	36	22	13	12	12	1	37.5	34.6	32.6	2.9
300-499인	1,193	470	337	132	116	111	17	28.2	24.6	23.6	3.6
500-999인	1,177	815	520	294	229	220	66	36.1	28.1	27.0	8.0
1000-4999인	786	1,523	885	638	386	369	252	41.9	25.3	24.2	16.6
5000-9999인	91	624	353	271	123	112	148	43.4	19.7	17.9	23.7
1만 인 이상	62	1,399	812	587	164	107	423	41.9	11.7	7.7	30.2
전규모	3,475	4,865	2,930	1,935	1,029	931	906	39.8	21.1	19.1	18.6
300인 이상	3,309	4,829	2,908	1,922	1,017	920	905	39.8	21.0	19.0	18.7

[표 4]의 연도별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1만인 이상 기업은 2017년 42.5%에서 2018년 41.9%로 0.6%p 낮아진데 비해,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은 2017년 40.7%에서 2018년 43.4%로 2.7%p 높아졌다. 300인 이상 5천인 미만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조금씩 낮아졌다.

[표 4]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수와 비율 변화(2014-18년)

기업 규모 (전체 노동자 기준)	비정규직 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300인 미만	98	20	25	15	13	41.7	41.7	42.2	35.3	37.5
300-499인	1,022	122	131	129	132	26.8	29.7	29.5	29.2	28.2
500-999인	1,003	275	301	303	294	34.4	36.5	38.0	38.2	36.1
1000-4999인	680	593	598	640	638	38.4	41.8	42.0	42.7	41.9
5000-9999인	82	210	359	250	271	37.4	39.2	41.3	40.7	43.4
1만 인 이상	57	596	813	580	587	40.5	41.7	42.2	42.5	41.9
전규모	2,942	1,815	2,836	1,917	1,935	37.3	39.5	40.1	40,3	39.8
300인 이상	2,844	1,796	2,802	1,902	1,922	37.2	39.5	40.1	40,4	39.8

4. 산업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20개(26.5%)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695개(20.0%)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3만 명(31.4%)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70만 명(14.3%)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그만큼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79.5%), 부동산업(68.9%), 숙박음식점업(62.5%),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6.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54.2%), 교육서비스업(48.9%)이 높고, 수도하수 폐기물처리(13.2%), 전기가스수도사업(14.2%),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22.7%), 제조업(24.2%)은 낮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부동산업(52.9%), 사업시설사업지원서비스업(49.4%), 숙박음식점업(48.7%), 교육서비스업(39.2%)이 높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47.3%),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42.9%), 운수업(24.3%), 제조업(21.0%), 광업(20.0%)이 높다.

(표 5)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대분류 기준)

산업(대분류)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정규직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농업,임업및어업	1	0.5	0.3	0.2	0.1	0.1	0.1	34.6	24.8	24.8	9.8
광업	1	0.9	0.6	0.3	0.04	0.04	0.2	24.6	4.5	4.5	20.0
제조업	920	1,526	1,156	370	50	48	320	24.2	3.3	3.1	21.0
전기,가스,증기	14	8.0	6.9	1.1	0.3	0.3	0.8	14.2	4.1	4.1	10.1
수도,하수폐기물	8	5	4	0.6	0.5	0.5	0.04	13.2	12.3	11.4	0.9
건설업	256	456	93	363	147	146	216	79.5	32.2	32.0	47.3
(생산자서비스업)	1,118	1,278	696	582	453	440	129	45.5	35.4	34.4	10.1
금융보험업	153	320	232	88	29	28	59	27.4	9.1	8.8	18.3
부동산업	107	117	36	81	62	61	19	68.9	52.9	51.9	16.0
전문과학기술	163	144	106	38	20	20	18	26.3	14.1	13.6	12.2
사업시설관리	695	697	319	378	344	331	33	54.2	49.4	47.5	4.8
(유통서비스업)	582	878	579	299	142	96	157	34.1	16.2	10.9	17.9
도매소매업	230	397	238	158	84	51	75	39.9	21.1	12.8	18.9
운수업	180	237	153	84	26	26	58	35.4	11.1	11.0	24.3
출판영상정보	172	244	188	55	32	19	24	22.7	13.0	7.7	9.7
(개인서비스업)	148	258	115	143	98	70	45	55.6	38.1	27.1	17.4
숙박음식점업	76	167	63	104	81	52	23	62.5	48.7	31.3	13.8
예술스포츠여가	24	43	19	25	6	6	19	56.5	13.6	13.4	42.9
협회단체수리기타	48	48	32	16	13	12	3	32.4	26.6	25.9	5.9
(사회서비스업)	427	453	280	173	132	131.3	40.3	38.1	29.2	29.0	8.9
공공행정국방	3	1.6	1.0	0.55	0.28	0.27	0.26	33.8	17.5	16.7	16.4
교육서비스업	163	234	119	114	91	91	23	48.9	39.2	38.8	9.7
보건사회복지	261	219	160	59	42	40	17	26.9	19.0	18.1	7.9
전산업	3,475	4,865	2,930	1,935	1,029	931	906	39.8	21.1	19.1	18.6

[표 6]에 제시된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은 조선(58.9%), 철강금속(41.4%), 음식료(25.6%), 화학물질(25.0%), 전기장비(22.2%), 기타(22.0%), 전자부품컴퓨터통신(17.8%), 자동차트레일러(16.0%), 기계장비(14.5%), 섬유 의복 가죽(14.3%) 순이다. 제조업은 모든 업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는데, 특히 조선(56.5%)과 철강금속(39.4%)에서 높다.

지난 1년 사이 자동차 산업 노동자는 26만 1천 명에서 25만 7천 명으로 4천 명 감소했다. 정규직은 21만 5천 명에서 21만 6천 명으로 1천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4만 6천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4천 명 감소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비율은 17.6%에서 16.0%로 1.6%p 감소했고, 사내하청 비율도 14.9%에서 13.6%로 1.3%p 감소했다.

조선산업 노동자는 13만 명에서 12만 4천 명으로 6천 명 감소했다. 정규직은 5만 명에서 5만 1천 명으로 1천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8만 명에서 7만 3천 명으로 7천 명 감소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비율은 61.5%에서 58.9%로 2.6%p 감소했고, 사내하청 비율도 59.2%에서 56.5%로 2.7%p 감소했다.

(표 6)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규모(2018년 3월, 중분류 기준)

산업((제조업 업종)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 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음식료	125	93	32	8	8	24	25.6	6.4	6.4	19.2
섬유의복가죽	21	18	3	1	1	2	14.3	4.8	4.8	9.5
화학물질	132	99	33	4	4	29	25.0	3.0	3.0	22.0
철강금속	99	58	41	2	2	39	41.4	2.0	2.0	39.4
전자부품컴퓨터통신	409	336	73	9	7	64	17.8	2.2	1.7	15.6
전기장비	45	35	10	2	2	8	22.2	4.4	4.4	17.8
기계 및 장비	69	59	10	3	3	7	14.5	4.3	4.3	10.1
자동차 트레일러	257	216	41	6	7	35	16.0	2.3	2.7	13.6
조선	124	51	73	3	2	70	58.9	2.4	1.6	56.5
기타	246	192	54	11	11	43	22.0	4.5	4.5	17.5
제조업	1,526	1,156	370	50	48	320	24.2	3.3	3.1	21.0
비제조업	3,339	1,773	1,566	980	883	586	46.9	29.4	26.4	17.6
전산업	4,865	2,930	1,935	1,029	931	906	39.8	21.2	19.1	18.6

5. 시도(광역지자체)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692개(48.7%)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611개(17.6%)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면 서울이 286만 명(58.7%)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82만 명(16.9%)으로 두 번째로 많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2,431개(70.0%)고, 노동자 수가 384만 명(79.0%)이다. 이것은 그만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음을 말해준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61.0%)과 울산(50.3%), 부산(44.0%), 서울(42.2%) 순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23.3%), 충북(27.6%), 충남(28.0%) 순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전남(45.1%)과 울산(34.7%)이 가장 높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대구(30.5%)가 가장 높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시도는 모두 대기업 노동자수가 증가했는데, 경남과 울산은 감소했다. 경남은 대기업 노동자 수가 19만 7천 명에서 15만 2천 명으로 4만 5천 명 감소했다. 정규직은 10만 7

천 명에서 9만 6천 명으로 1만 1천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9만 명에서 5만 6천 명으로 3만 4천 명 감소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비율은 45.5%에서 36.8%로 8.7%p 감소했고, 사내하청 비율도 38.4%에서 27.4%로 11.0%p 감소했다.

울산은 노동자 수가 9만 7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1만 8천명 감소했다. 정규직은 4만 6천 명에서 3만 9천 명으로 7천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5만 1천 명에서 4만 명으로 1만 1천 명 감소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비율은 52.9%에서 50.3%로 2.6%p 감소했고, 사내하청 비율도 40.7%에서 34.7%로 6.0%p 감소했다.

[표 7]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2018년 3월 현재)

시도	기업 수 (개)	노동자 수(천 명)	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서울	1,692	2,857	1,651	1,206	685	602	521	42.2	24.0	21.1	18.2
부산	189	152	85	67	44	41	23	44.0	28.7	27.0	15.3
대구	97	90	54	36	27	27	9	40.3	30.5	29.8	9.8
인천	128	161	99	63	29	28	33	38.8	18.2	17.6	20.6
광주	60	54	32	21	16	16	6	39.9	29.6	29.5	10.3
대전	73	85	51	35	23	21	12	40.5	26.5	24.1	14.0
울산	49	79	39	40	12	12	27	50.3	15.6	15.6	34.7
세종	12	8	5	2	0.4	0.4	2	29.8	5.2	5.2	24.6
경기	611	823	560	263	119	113	144	32.0	14.4	13.7	17.5
강원	38	32	25	7	4	3	4	23.3	11.0	10.2	12.2
충북	71	51	37	14	9	9	5	27.6	18.5	17.0	9.0
충남	94	85	61	24	14	14	10	28.0	16.2	16.2	11.8
전북	48	42	26	15	10	10	6	36.9	23.5	22.9	13.4
전남	45	45	18	28	7	7	20	61.0	15.9	15.9	45.1
경북	112	131	79	53	12	11	41	40.2	8.8	8.6	31.4
경남	128	152	96	56	14	14	42	36.8	9.4	9.2	27.4
제주	28	17	12	5	4	3	1	28.5	20.9	20.6	7.6
전지역	3,475	4,865	2,930	1,935	1,029	931	906	39.8	21.1	19.1	18.6

6.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

전체 3,475개 기업 중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195개(5.6%)이고, 10% 미만 사용하는 기업이 865개(24.9%)이다. 100% 비정규직만 사용하는 기업은 29개(0.8%)이고, 9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424개(12.2%)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1,030개(29.6%)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95개 기업 9만 8천 명 가운데 64개 기업 3만 9천 명은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력 파견·용역업체이므로 실제로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줄어든다.

[표 8]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별 비정규직 규모 (2018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비율	기업 수(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 명)				비정규직 구성(%)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0%	195 (5.6)	98	98	0	0	0	0	0.0	0.0	0.0	0.0
10% 미만	865 (24.9)	714	678	36	20	16	16	5.0	2.8	2.3	2.2
10-20%미만	531 (15.3)	828	706	123	54	49	69	14.8	6.5	5.9	8.3
20-30%미만	364 (10.5)	687	521	166	49	46	117	24.1	7.1	6.7	17.0
30-40%미만	293 (8.4)	485	320	165	79	73	87	34.1	16.2	15.0	17.9
40-50%미만	197 (5.7)	359	197	162	74	61	88	45.2	20.6	16.9	24.5
50-60%미만	201 (5.8)	353	161	192	81	74	111	54.5	22.9	21.0	31.6
60-70%미만	161 (4.6)	352	121	232	102	92	130	65.8	28.9	26.2	36.8
70-80%미만	119 (3.4)	232	60	172	99	74	73	74.3	42.8	31.9	31.5
80-90%미만	125 (3.6)	346	56	290	112	93	178	83.9	32.5	26.8	51.5
90-100%미만	395 (11.4)	392	14	377	340	336	37	96.3	86.9	85.8	9.4
100%	29 (0.8)	20	0	20	19	18	1	100.0	97.9	90.6	2.1
전체	3,475 (100)	4,865	2,930	1,935	1,029	931	906	39.8	21.1	19.1	18.6

7. 재벌기업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7개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는 총 1,991개이다. 31개 상호 출자제한집단 소속 계열사는 1,291개이고, 2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700개이다. 노동부가 2018년 3월 기준으로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는 57개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472개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203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1만 명(40.2%)이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9만 명(9.3%)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3만 명(30.9%)이다.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표 9] 재벌기업 비정규직 규모(2018년 3월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수(개)	조사기업 수(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대기업집단 (57개)	1,991	472	2,025	1,211	814	188	134	626	40.2	9.3	6.6	30.9
상호출자제한집단(31개)	1,291	366	1,810	1,089	721	164	110	557	39.8	9.1	6.1	30.8
공시대상기업집단(26개)	700	106	216	123	93	24	23	69	43.1	11.1	10.8	32.1
10대재벌	677	235	1,296	814	483	103	80	380	37.2	7.9	6.1	29.3
11~20대재벌	335	84	389	212	177	53	23	125	45.5	13.5	6.0	32.0
21~30대재벌	272	43	113	56	57	9	7	48	50.2	7.6	6.3	42.6
31~40대재벌	274	55	109	62	47	9	9	38	43.2	8.4	8.2	34.8
41~50대재벌	274	32	85	46	39	13	12	26	45.9	14.7	14.3	31.2
51~57대재벌	159	23	33	22	11	3	3	9	34.3	8.5	8.4	25.9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8만 명(37.2%)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 명(7.9%)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8만 명(29.3%)이다. 하위 재벌에서 비정규직 비율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아진다. 비정규직 비율은 11-20대 재벌 45.5%, 21-30대 재벌 50.2%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1-20대 재벌 32.0%, 21-30대 재벌 42.6%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삼성(12만 2천 명), 현대자동차(7만 8천 명), 롯데(7만 7천 명), SK(4만 2천 명), 포스코(3만 8천 명), LG(2만 9천 명), 현대중공업(2만 9천 명), GS(2만 6천 명), 한화(2만 3천 명), 농협(1만 8천 명) 순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GS(59.9%)가 가장 높고, 롯데(57.2%), 포스코(56.0%), 현대중공업(49.5%), 농협(39.8%), 한화(37.8%), 현대자동차(33.8%), 삼성(33.7%), SK(33.4%), LG(17.7%) 순이다.

[표 10] 대기업 집단별 비정규직 규모(2018년 3월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수(개)	조사기업 수(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삼성	63	38	363	241	122	15	14	107	33.7	4.2	3.8	29.5
현대자동차	56	25	230	152	78	10	10	68	33.8	4.5	4.5	29.3
에스케이	103	41	126	84	42	4	4	38	33.4	3.2	2.8	30.1
엘지	71	29	166	137	29	6	6	23	17.7	3.8	3.4	13.9
롯데	95	29	134	57	77	38	22	39	57.2	28.4	16.6	28.8
포스코	40	12	67	30	38	3	3	34	56.0	4.6	4.6	51.4
지에스	69	13	44	18	26	10	6	16	59.9	22.4	13.4	37.5
한화	73	24	60	37	23	6	6	17	37.8	10.1	9.9	27.7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수(개)	조사기업 수(개)	노동자수 (천 명)	정규직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현대중공업	28	9	59	30	29	1	1	28	49.5	2.3	2.3	47.2
농협	79	15	46	28	18	8	8	10	39.8	17.8	17.2	22.1
신세계	39	13	81	43	38	19	5	19	47.1	23.4	6.5	23.7
케이티	36	15	63	51	12	5	4	7	19.1	8.1	6.4	11.0
두산	25	8	26	16	10	2	2	9	39.8	6.0	6.0	33.8
한진	28	8	46	26	20	2	2	18	43.3	4.9	4.7	38.4
씨제이	77	14	66	34	32	17	3	14	48.0	26.4	4.2	21.5
부영	24	2	9	1	7	1	1	7	85.1	6.6	6.6	78.5
엘에스	48	7	12	9	3			2	22.4	3.9	3.9	18.5
대림	26	5	34	6	28	5	5	23	82.1	13.9	13.9	68.2
금호아시아나	27	9	20	15	5	2	2	3	23.6	7.9	7.8	15.7
대우조선해양	5	3	34	11	23			23	67.6	0.3	0.3	67.2
미래에셋	41	4	7	6	1	1	1		19.0	14.0	14.0	5.0
에쓰오일	3	1	4	3	1			1	28.7	2.5	2.5	26.2
현대백화점	28	10	27	13	14	3	1	11	51.0	9.8	4.4	41.2
오씨아이	21	4	7	4	3			3	44.5	3.3	3.3	41.2
효성	44	6	16	10	7	1	1	6	40.5	3.7	3.7	36.9
영풍	24	5	8	4	4			4	51.9	1.0	1.0	50.9
케이티앤지	9	2	8	5	2			2	28.8	3.3	3.3	25.5
한국투자금융	30	2	3	2	1	1	1		30.7	22.1	21.7	8.7
대우건설	15	2	24	4	20	3	3	18	83.0	10.8	10.8	72.3
하림	57	7	8	5	3			3	37.4	4.0	4.0	33.5
케이씨씨	7	4	11	7	4	1	1	4	38.1	5.0	5.0	33.1
코오롱	40	9	17	9	9	2	2	7	50.6	9.6	9.6	40.9
한국타이어	17	3	10	8	2			2	23.0	0.9	0.9	22.1
교보생명보험	14	6	12	7	5	2	2	3	43.2	15.2	15.2	27.9
중흥건설	61	4	9	1	9			8	91.5	4.3	4.3	87.2
동부	23	9	12	11	1	1	1	1	12.2	6.7	6.5	5.5
동원	22	7	13	8	5	1	1	4	40.6	10.6	9.4	30.0
한라	19	5	9	6	3	1	1	2	33.9	7.6	7.6	26.3
세아	21	3	6	3	3			2	45.4	0.5	0.5	45.0
태영	50	5	10	4	6	2	2	4	58.6	17.2	17.2	41.4
한국지엠	2	1	17	15	1			1	8.8	0.1	0.1	8.7
이랜드	29	4	17	6	11	2	2	9	65.8	13.8	13.4	52.0
아모레퍼시픽	12	2	13	6	7			7	53.1	2.5	2.5	50.6
태광	24	6	8	6	2	1	1	1	24.4	13.9	13.5	10.4
동국제강	9	1	4	3	1			1	33.7	1.2	1.2	32.5
SM	67	4	2	2					15.7	4.4	4.4	11.3
호반건설	38	3	1	1	1	1	1		60.3	51.3	51.3	9.1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수(개)	조사기업 수(개)	노동자수 (천 명)	정규직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현대산업개발	20	4	15	2	13	7	7	6	88.0	47.3	45.9	40.7
셀트리온	9	2	2	2	1				24.3	14.5	14.5	9.8
카카오	64	5	5	4	1			1	21.5	9.0	8.6	12.6
네이버	69	8	7	6	1	1	1		13.0	8.7	8.5	4.3
한진중공업	8	2	7	3	4	1	1	3	58.4	16.1	16.1	42.3
삼천리	17	2	1	1					15.9	11.3	11.3	4.7
금호석유화학	11	1	3	2	1			1	43.2	14.0	14.0	29.1
하이트진로	12	1	5	3	2			2	45.8	1.7	1.7	44.1
넥슨	23	3	4	3					2.1	1.7	1.7	0.4
한솔	19	6	5	3	2			2	39.2	5.0	5.0	34.3
합계	1,991	472	2,025	1,211	814	188	134	626	40.2	9.3	6.6	30.9

주: 음영부분은 대기업 집단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이며, 하얀바탕 부분은 상호출자제한집단임.

10대 재벌 소속 계열사는 2017년 3월 647개에서 2018년 3월 677개로 1년 만에 30개 증가했다. 한화가 61개에서 73개로 12개 증가했고, SK가 96개에서 103개로 7개 증가했다.

10대 재벌의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27개에서 235개로 8개 증가했다. SK가 8개, 한화가 5개 증가했고,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각 3개씩 감소했다. 10대 재벌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27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3만 명 증가했다. SK와 포스코는 각각 2만 3천 명씩 증가한데 비해, 현대중공업은 2만 5천 명, 삼성은 1만 3천 명 감소했다.

지난 1년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한 그룹은 SK, LG, 포스코 3개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한 그룹은 GS, 현대중공업 2개이다.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그룹은 삼성과 농협 2개고,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 1개이다.

[표 11] 10대 재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2017-18년,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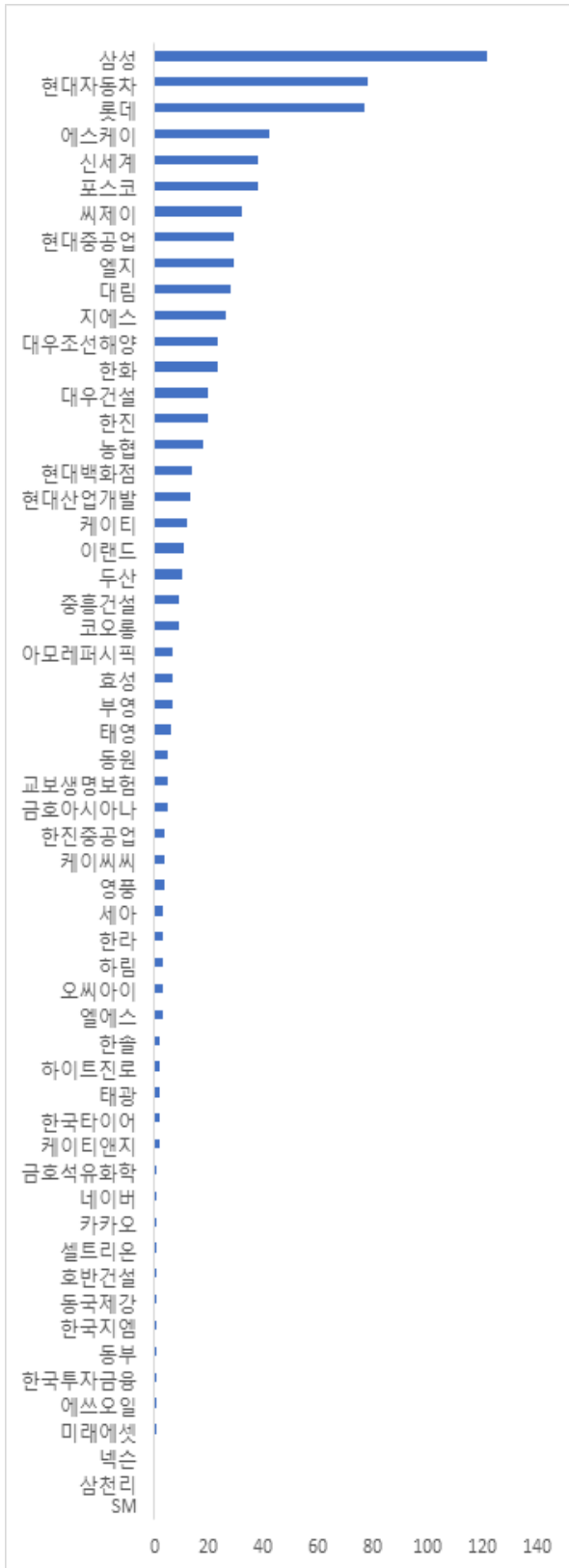
	정규직 감소	정규직 불변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증가	롯데(-1,7)	현대자동차(0,5)	SK(13,9), LG(1,3) 포스코(5,18)
비정규직 불변			한화(8,0)
비정규직 감소	GS(-1,-2), 현대중공업(-9,-16)		삼성(5,-19), 농협(2,-1)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 비율은 포스코가 42.2%에서 56.0%로 13.8%p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롯데가 54.6%에서 57.2%로 2.6%p 증가했다. 한화는 43.7%에서 37.8%로 5.9%p 감소했고, 삼성은 37.4%에서 33.7%로 3.7%p, 현대중공업은 53.2%에서 49.5%로 3.7%p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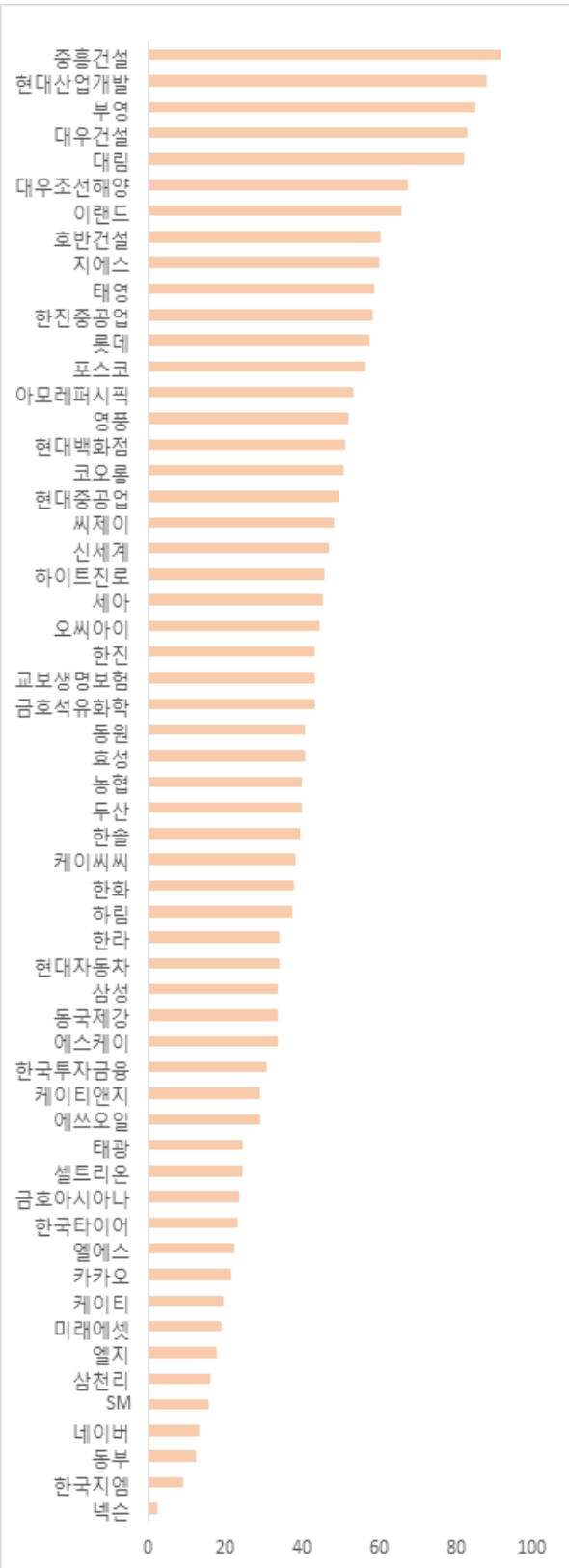
[표 12] 10대 재벌 비정규직 규모 추이(2017-2018년)

연도	대기업집단	계열 기업수 (개)	조사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 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고용	전체	직접 고용	간접 고용
2017년	10대재벌	647	227	1,268	792	476	102	374	37.6	8.1	29.5
	삼성	62	41	376	236	141	16	125	37.4	4.3	33.2
	현대자동차	53	28	226	152	73	12	61	32.6	5.4	27.2
	에스케이	96	33	103	71	33	4	29	31.7	3.8	27.9
	엘지	68	29	163	136	26	6	20	16.2	3.7	12.5
	롯데	90	28	128	58	70	32	38	54.6	25.2	29.4
	포스코	38	10	44	25	18	1	17	42.2	2.7	39.5
	지एस	69	15	47	19	28	11	17	58.9	22.3	36.5
	한화	61	19	52	29	23	6	17	43.7	11.9	31.9
	현대중공업	29	9	84	39	45	3	41	53.2	4.0	49.1
농협	81	15	45	26	19	10	9	42.4	23.2	19.1	
2018년	10대재벌	677	235	1,296	814	483	103	380	37.2	7.9	29.3
	삼성	63	38	363	241	122	15	107	33.7	4.2	29.5
	현대자동차	56	25	230	152	78	10	68	33.8	4.5	29.3
	에스케이	103	41	126	84	42	4	38	33.4	3.2	30.1
	엘지	71	29	166	137	29	6	23	17.7	3.8	13.9
	롯데	95	29	134	57	77	38	39	57.2	28.4	28.8
	포스코	40	12	67	30	38	3	34	56.0	4.6	51.4
	지एस	69	13	44	18	26	10	16	59.9	22.4	37.5
	한화	73	24	60	37	23	6	17	37.8	10.1	27.7
	현대중공업	28	9	59	30	29	1	28	49.5	2.3	47.2
농협	79	15	46	28	18	8	10	39.8	17.8	22.1	
증감	10대재벌	30	8	28	22	7	1	6	-0.4	-0.2	-0.2
	삼성	1	-3	-13	5	-19	-1	-18	-3.7	-0.1	-3.7
	현대자동차	3	-3	4	0	5	-2	7	1.2	-0.9	2.1
	에스케이	7	8	23	13	9	0	9	1.7	-0.6	2.2
	엘지	3	0	3	1	3	0	3	1.5	0.1	1.4
	롯데	5	1	6	-1	7	6	1	2.6	3.2	-0.6
	포스코	2	2	23	5	18	2	17	13.8	1.9	11.9
	지एस	0	-2	-3	-1	-2	-1	-1	1.0	0.1	1.0
	한화	12	5	8	8	0	0	0	-5.9	-1.8	-4.2
	현대중공업	-1	0	-25	-9	-16	-2	-13	-3.7	-1.7	-1.9
농협	-2	0	1	2	-1	-2	1	-2.6	-5.4	3.0	

(그림 1) 대기업집단 비정규직 규모 순위별



(그림 2) 대기업집단 비정규직 비율 순위별



8. 1만 명 이상 거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거대기업은 62개사이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40만 명이고 비정규직은 59만 명(41.9%)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2만 명(30.2%)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16만 명(11.7%)보다 많다.

포스코건설(84.0%), 롯데건설(83.6%), SK건설(83.4%), 대우건설(83.2%), 대림산업(83.1%), 현대건설(81.5%) 등 건설 6개사와 한국맥도날드(90.2%), 이랜드파크외식사업부(81.5%), 스타벅스커피코리아(81.5%), 씨제이푸드빌(81.0%) 등 외식 4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다. 이에 비해 서울교통공사(3.0%), 한국 GM(8.8%), LG디스플레이(9.5%) 3개사는 10%가 안 된다. 업종과 기업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크다.

[표 13] 1만 인 이상 거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회사명	산업	노동자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수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간접)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간접)	간접고용
이노레퍼퍼픽	20	13,003	5,902	7,101	301	301	6,800	546	23	23	523
엘지화학	20	20,551	17,310	3,241	147	146	3,094	158	0.7	0.7	151
효성	20	11,577	7,770	3,807	281	281	3,526	329	24	24	305
포스코	24	32,572	16,956	15,616	120	118	15,496	479	0.4	0.4	476
현대제철	24	24,315	11,288	13,027	180	180	12,847	536	0.7	0.7	528
삼성디스플레이	26	29,192	24,874	4,318	53	53	4,265	148	0.2	0.2	146
삼성에스디아이	26	11,130	9,108	2,022	645	643	1,377	182	5.8	5.8	124
삼성전자	26	12,413	10,791	1,622	36	3	1,586	131	0.3	0.0	128
삼성전자	26	127,139	100,838	26,301	1,113	671	25,188	207	0.9	0.5	198
에스케이하이닉스	26	32,667	24,615	8,052	112	112	7,940	246	0.3	0.3	243
엘지디스플레이	26	36,851	33,361	3,490	142	120	3,348	95	0.4	0.3	91
엘지전자	26	42,025	36,833	5,192	827	642	4,355	124	2.0	1.5	104
두산중공업	29	10,048	6,763	3,285	712	712	2,573	327	7.1	7.1	256
기아자동차	30	38,632	34,348	4,284	322	319	3,962	11.1	0.8	0.8	103
현대차임	30	16,956	15,460	1,496	13	13	1,483	88	0.1	0.1	87
현대모비스	30	16,018	9,368	6,650	337	335	6,313	41.5	2.1	2.1	39.4
현대자동차	30	77,891	65,702	12,189	2,921	2,921	9,268	15.6	3.8	3.8	11.9
대우조선해양	31	29,947	9,915	20,032	100	100	19,932	66.9	0.3	0.3	66.6
삼성중공업	31	24,609	10,439	14,170	282	262	13,888	57.6	1.1	1.1	56.4
현대선호중공업	31	10,235	3,605	6,630	56	56	6,574	64.8	0.5	0.5	64.2
현대중공업	31	30,543	15,174	15,369	496	496	14,873	50.3	1.6	1.6	48.7
대림산업	41	26,523	4,479	22,044	3,815	3,813	18,229	83.1	14.4	14.4	68.7
대우건설	41	23,873	4,002	19,871	2,178	2,178	17,693	83.2	9.1	9.1	74.1
롯데건설	41	13,395	2,194	11,201	2,280	2,280	8,921	83.6	17.0	17.0	66.6
삼영물산	41	29,778	9,142	20,636	3,367	3,323	17,289	69.3	11.3	11.2	58.0

회사이름	산업	노동자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수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가맹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가맹제)	간접고용
삼성전자노딩	41	16,278	4,261	12,017	1,010	1,005	11,007	738	62	62	67.6
에스케이건설	41	24,966	4,152	20,814	860	860	19,954	834	34	34	79.9
지메스건설	41	20,124	5,185	14,939	3,878	3,878	11,061	742	193	193	55.0
포스코건설	41	22,708	3,623	19,085	1,774	1,774	17,311	840	7.8	7.8	76.2
현대건설	41	23,640	4,374	19,266	2,380	2,365	16,886	81.5	10.1	10.0	71.4
현대전자노딩	41	13,829	4,159	9,670	1,524	1,508	8,146	69.9	11.0	10.9	58.9
롯데쇼핑	47	45,757	12,667	33,090	20,269	5,394	12,821	72.3	44.3	11.8	28.0
이성디앤씨	47	11,240	4,375	6,865	6,865	6,865	-	61.1	61.1	61.1	-
이마트	47	39,889	27,050	12,819	3,766	3,313	9,053	32.2	9.4	8.3	22.7
지메스호텔	47	10,817	5,600	5,217	4,284	311	933	48.2	39.6	2.9	8.6
홈플러스	47	23,501	13,181	10,320	6,691	2,105	3,629	43.9	28.5	9.0	15.4
사립고등학교	49	17,581	17,047	534	121	121	413	3.0	0.7	0.7	2.3
씨제이디엔투론	49	19,289	5,886	13,398	405	405	12,988	69.4	2.1	2.1	67.3
한진	49	10,169	1,412	8,757	67	67	8,690	86.1	0.7	0.7	85.5
대한항공	51	25,104	18,841	6,263	860	850	5,403	24.9	3.4	3.4	21.5
아시아나항공	51	10,400	8,533	1,867	347	336	1,520	18.0	3.3	3.2	14.6
스타벅스커피코리아	56	13,453	2,493	10,960	10,839	-	121	81.5	80.6	-	0.9
신세계푸드	56	10,033	3,544	6,489	1,264	826	5,225	64.7	12.6	8.2	52.1
씨제이푸드빌	56	10,389	1,989	8,420	8,408	7	12	81.0	80.9	0.1	0.1
이우홀	56	12,172	5,905	6,267	4,177	2,827	2,090	51.5	34.3	23.2	17.2
이랜드리조트사업	56	10,400	1,923	8,477	8,267	8,261	210	81.5	79.5	79.4	2.0
한쿠푸드월드	56	15,177	1,488	13,689	13,687	11,245	2	90.2	90.2	74.1	0.0
씨제이올리브트윈스	61	10,617	4,165	6,452	6,433	178	19	60.8	60.6	1.7	0.2
케이티	61	26,965	23,602	3,363	124	124	3,239	12.5	0.5	0.5	12.0
삼성카드에스	62	16,997	12,997	4,000	178	80	3,822	23.5	1.0	0.5	22.5
KEB하나은행	64	15,834	13,109	2,725	523	523	2,202	17.2	3.3	3.3	13.9
국민은행	64	22,686	16,745	5,941	930	930	5,011	26.2	4.1	4.1	22.1
농협은행	64	19,609	13,104	6,505	2,920	2,920	3,585	33.2	14.9	14.9	18.3
신한은행	64	17,409	12,719	4,690	1,011	788	3,679	26.9	5.8	4.5	21.1
우리은행	64	18,499	13,888	4,606	781	545	3,825	24.9	4.2	2.9	20.7
삼구이앤씨	75	11,543	3,663	7,880	7,880	7,880	-	68.3	68.3	68.3	-
에스원	75	17,280	6,002	11,258	364	364	10,894	65.2	2.1	2.1	63.1
유에스	75	11,977	4,345	7,632	7,632	7,632	-	63.7	63.7	63.7	-
케이투엔피워	75	10,307	6,021	4,286	4,286	2,991	-	41.6	41.6	29.0	-
학교법인기독교회	84	18,433	12,587	5,846	3,143	3,143	2,703	31.7	17.1	17.1	14.7
연세대학교수업사업	85	19,650	12,866	6,794	3,632	3,604	3,162	34.6	18.5	18.3	16.1
이산사회복지재단	86	12,168	8,412	3,756	1,176	1,173	2,580	30.9	9.7	9.6	21.2
62개사		139,733	81,213	58,598	16,392	10,726	42,006	41.9	11.7	7.7	30.2

9. 함의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7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45만 명(전체 노동자의 12.3%)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3.4%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인 이상 대기업 3,475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87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5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8%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3배 높다. 실제로 통계청 ‘임금근로자리 행정통계’에서 2015년 정부와 민간 대기업 노동자는 758만 명(전체 노동자의 39.6%)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은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이 올바른 노동정책을 선택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이 920개(26.7%)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695개(20.0%)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3만 명(31.4%)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70만 명(14.3%)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했음을 말해준다.

셋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4만 명(39.8%)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3만 명(21.1%),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1만 명(18.6%)이다.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의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70만 명을 정규직 32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4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3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25만 명(46.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7만 명(32.3%)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9만 명(14.1%)으로 줄어든다.

넷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2%고, 500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은 36.1%인데, 1천인 이상 기업은 40%가 넘는다. 즉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이 43.4%로 가장 높고, 1천인 이상 5천인 미만 기업과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1.9%이다. 대기업이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다섯째,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37.2%로, 간접고용 비정규직(29.3%)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9%)보다 4배 많다. 특히 GS(59.9%), 롯데(57.2%), 포스코(56.0%)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LG는 비정규직 비율 13.9%로 10대 재벌 중 가장 낮다.

여섯째, 지난 1년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늘린 재벌은 SK, LG, 포스코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줄인 재벌은 GS와 현대중공업이다. 롯데는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렸고, 삼성은 정규직은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였다. 롯데는 전체 고용규모가 6천명 감소한데 비해, 삼성은 전체 고용 규모가 1만 4천명 감소했다.

일곱째, 지난 1년 사이 다른 시도는 노동자수가 증가했는데, 경남과 울산은 노동자수가 감소했다. 경남은 19만 7천명에서 15만 2천명으로 노동자수가 4만 5천명(정규직 1만 1천명, 비정규직 3만 4천명) 감소했고, 울산은 9만 7천명에서 7만 9천명으로 노동자수가 1만 8천명(정규직 7천명, 비정규직 1만 1천명) 감소했다. 이것은 조선산업 장기침체와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 명(39.5%), 2016년에는 190만 명(40.1%), 2017년에는 192만 명(40.3%), 2018년에는 194만 명(39.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